

대선공약 이것만은 꼭 반영을

- ☑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 ☑ 영산강 프로젝트
- ☑ 광주 문화산단 건설
- ☑ 여수엑스포 SOC 지원
- ☑ J프로젝트·서남권 개발

7개월 앞으로 다가 온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grand 플랜과 주요 현안을 반드시 주요 정당과 후보의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광주시의 연구·개발(R&D) 특구, 복합의료단지 등 타 시·도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거나 서남해안 개발 등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등은 공약 반영이 시급하다.

광주일보의 29일 한나라당이 광주에서 첫 대선 후보간 정책토론회를 갖는 것을 계기로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광주·전남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주요 대선 공약들을 선별했다. <관련기사 3면>

대선 주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약은 광주·전남 공통사항으로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영산강 개발 프로젝트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설계중인 호남고속철(익산~광주 2015년 완공 예정·광주~목포 2017년 완공 예정)의 조기 착공과 완공을 약속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산강 개발 프로젝트는 광주가 내륙도시의 한계에서 벗어나 해양(목포)과 연결되고, 영산강을 문화·환경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광주 문화도시와 전남 해안 관광자원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효과를 낸다는 측면에서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모델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연구개발 특구와 고령친화특구, 첨단 의료 복합단지 등은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거나 각 사업별로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만큼 시·도의 공조와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

광주시에 대해서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직결될 수 있도록 복합문화산단단지 건설을 약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영기 전남대 교수와 김하림 조선대 교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축으로 운영되는 문화중심도시는 지역의 문화역량을 키울 수는 있지만 경제적 측면의 부가가치는 미지수여서 3조 원 정도가 투입되는 복합 문화산단을 유치해 문화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 경우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와 함께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정치권의 약속이 꼭 필요하다. 또 국토 서남권의 획기적인 성장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서남권 등 낙후지역 개발 특별법' 통과와 사후 지원을 다짐하라는 것이다.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사업부지인 해남·영암지역 간척지 확보와 'F1(포틀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도 꼭 필요하다. <박치경기자·채희종기자 unipark@kwangju.co.kr>



천주교도 순교 재현

27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천주교 광주대학교 교구 설정 70주년 경축제'에 참가한 나주성당 신자들이 순교자 현안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빛 속에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의 가톨릭 신자 4천여명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알림

뮤지컬 '넌센스 크래커' 초청공연

6월 30일, 7월 1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일보사는 수녀들의 요점복통 코믹 뮤지컬 '넌센스 크래커(Nonsense cracker)' 초청공연을 갖습니다.



1985년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공연된 단고간의 '넌센스' 시리즈는 지난 1991년 한국에서 초연된 이후 지난 15년간 8천여회 공연돼 285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화제작입니다.

네 번째 시리즈인 '넌센스 크래커'는 수녀들이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마왕'을 제작하며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 작품으로 업그레이드된 춤과 노래, 연기로 지난해 서울 공연 당시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는 가수 조갑경과 개그맨 심현섭·김숙이 출연, 숨겨둔 실력을 선보이며 흥지민·나정윤 등 뮤지컬 전문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뮤지컬 팬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 시 : 2007년 6월 30일(토) 오후4시, 7시30분 / 2007년 7월 1일(일) 오후3시, 6시30분
- 장 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 주 관 : 공연마루
- 인터넷예매 : www.ticketmaru.co.kr
- 공연문의 : (062)220-0541, 1588-0766 /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문화수도 추진단장 지역인사 기용하라”

광주 시민·문화단체 성명

광주지역 일부 시민·문화 단체들이 문광부가 공모중인 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에 지역 인사 기용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문화연대 등 지역의 25개 시민·문화 단체로 구성된 '광주 문화도시협의회'(협의회)는 28일 오후 광주YMCA에서 추진단장의 지역 전

문가 기용과 함께, ▲광주 도시리모델링 사업의 국비 추진 ▲조성위의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 측은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 공모가 진행중인 추진단장에 지역 인사가 배제되고 문광부 또는 청와대 출신 공무원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버스 추락 참사’ 지리산 횡단도로 방호벽 등 안전시설물 점검 필요

공단·경찰·119구급대 유기적 시스템 구축 시급

중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리산 횡단도로(861번 지방도·구례군 광의면 천은사·성삼재·남원시 산내면 반산)에 대한 교통안전 시스템 개선과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를 계기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횡단도로 폐지 움직임이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7면>

◇안전 시설물 미흡=해발 1천100m인 성삼재를 정점으로 한 횡단도로의 총 길이는 19km(성삼재~천은사 구간 10km)로, S자형 굴곡이 190여 곳에 달하고 평균 경사도는 20~30도다. 지난 1988년 개통된 이 도로는 현재 연간 45만대의 차량과 110만 명의 등산객이 찾고 있다.

하지만 사고 조심 안내 표지판은 80개에 불과하고 미끄럼방지 적사함(積沙函)과 도로 방호벽은 각각 50여 곳과 6곳뿐이다. 순천 매산 중학생 '체합 학습단'이 탄 버스 추락 지점

(해발 760m)인 '수도암' 인근도 30도 경사의 가파른 내리막길이었지만, 차량 충돌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안전 시설물은 전혀 없었다. 운전자들은 따라서 도로 폐지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위험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순찰차 및 119구급차와 경찰의 순찰활동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행정청과 주말·휴일의 경우 하루 4천여 대가 넘는 차량이 밀리고 있어 공단과 경찰·119 구급대간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 구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참사의 사고 발생은 오후 2시 10분이었지만, 순찰차와 구급차의 사고 지점 첫 도착까지는 13분이나 걸렸다. 운전자 김모(43·남원시)씨는 “경고 표지판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다”면서 “위험 구간에 순찰차나 공단 차량을 배치해 수(手)신호를 해준다면 사고 위험은 많이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전 필수=개통 이후 한 달 평균 3~4건씩 발생하는 횡단도로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내려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으며 내리막길을 달리면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이 마모되거나 제동이 되지 않을 우려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경사도가 심한 지리산 횡단도로를 달릴 땐 사전에 반드시 차량을 점검·정비하고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 제동보다는 엔진 브레이크(1~2단)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우양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임총보심 062(970-0114) ▶ T.062(970-0011-9)
세게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임총보심 1588-5051 ▶ T.061)360-5000



당신을 말해주는 가치들 속에 다윈을 더하십시오

한화 시스템 윈도우-다윈

SYSTEM WINDOW
Lift Sliding / 자동 Lift Sliding / Tilt & turn / Parallel Sliding & Turn
고강도 Tilt & Turn / 고강도 신형 Tilt & turn / Semi Lift Sliding

본사 : 서울시 중구 정교동 1 한화빌딩 14F 한화시스템부 TEL : 02 729 1493, 1498